

남자 고등학생의 하복 착용실태 및 착용만족도

The Actual Wearing Condition and Wearing Satisfaction of High School Boys' Summer Uniforms

충북대학교 패션디자인정보학과
교수 권수애
부교수 최종명
안성여자기능대학 산학협력처
김인화

Dept. of Fashion Design Informati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 Sooae Kweon

Associate Professor : Jongyoung Choi

Dept. of Industrial Relations, Ansung Women's Polytechnic College

Inwha, Kim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결론 |
| 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II. 결과 및 고찰 | |

< Abstract >

This study was performed to find ways to improve the wearing comfort of high school boys' summer uniforms. The subjects were 640 boy students of high schools in Cheongju and Ansung city. The data was collected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to measure the actual wearing condition and the wearing satisfaction. Factor analysis, t-test, and F-test were used for data analysi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Most students were wearing shirts made of polyester/rayon blended fabrics and pants made of wool/polyester blended fabrics. 2) Most students were wearing round neckline T-shirts or running shirts as underwears of the shirts, and trunks as pants. 3) About a half of respondents had altered their summer uniforms, and main

Corresponding Author: Sooae Kweon, Dept. of Fashion Design Informati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48 Gaein-dong, Cheongju Chungbuk 361-763, Korea Tel: 82-43-261-2748 Fax: 82-43-261-2791 E-mail: sooae@chungbuk.ac.kr

alteration of their uniforms was focused on making their pants narrow. 4) The wearing satisfaction of uniforms were classified into three factors: aesthetic, moving function, thermal comfort wearing sensation. 5) They evaluated the wearing sensation of school uniforms of shirts and pants with low satisfaction. 6) There were parti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ree factors of the wearing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uniform's fabrics, the wearing of underwear and the alteration of uniform.

주제어(Key Words): 하복(summer uniforms), 착용실태(actual wearing condition), 남자 고등학생(high school boys), 착용만족도(wearing satisfaction)

I. 서론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의복은 자기개념과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주며 그들의 감정과 정서 및 개성을 표현하는 중요한 도구적 역할을 한다. 그 중에서도 교복은 생활활동 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학교생활에서 착용하므로 청소년들의 의생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수업능률을 높이고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해서는 적절한 온열 환경 조성과 쾌적한 의복의 착용이 중요하다.

교복이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제정해 학생들에게 착용시키는 제복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남학생 교복은 배재학당에서 1898년 당복(堂服)을 학생에게 입힌 것이 시초라고 알려져 있다. 이 당복은 밴드칼라 형태였는데 소매끝, 바지의 솔기 부분, 모자에 청·홍선을 두른 것이었다(이규태, 1969). 이후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동복의 경우 상하 검은색 혹은 짙은 갈색 중심의 스탠드 칼라의 네루 재킷과 바지, 하복은 스포츠 칼라 셔츠와 바지 스타일의 교복이 1983년 교복자율화 조치가 실시될 때까지 주로 착용되었다. 그런데 교복자율화의 부작용이 거론되면서 1986년에는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교복착용 여부가 결정되었고 현재는 이전의 획일적이고 딱딱한 스타일과는 달리 학교에 따라 다양한 디자인과 색상의 교복을 착용시키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도 교육개혁의 한 방편으로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교복을 착용하도록 하는 도시가 증가함에 따라 교복정책에 대한 찬반론이 교차하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교복은 색상만 제한을 하는 경우이었으며, 이 경우 교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윤희 등, 2001).

교복은 다른 의복과는 달리 디자인, 소재, 봉제 등이 일정한 수준으로 통제된 상황에서 착용하는 것으로 교복에 대한 만족도는 맞춤새와 착용감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자신의 치수에 따라 교복을 개별적으로 맞추기보다는 정해진 치수에 의해서 생산되는 기성복을 구입하는 경향이 많으므로 치수에 대한 불만족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착용 쾌적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최근에는 독특하고 개성적인 그들만의 이미지를 선호하여 여학생의 경우 스커트의 길이를 줄이고 폭을 좁게 하며, 남학생은 바지 통을 좁게 하는 등의 교복을 변형하여 착용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권숙희 등, 2002; 황진숙 등, 2002). 따라서 교복의 쾌적성 및 착용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착용되는 교복 및 교복용 직물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교복에 대한 주관적 착용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교복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연구의 대부분은 교복의 디자인 측면(유경숙, 1991; 조진숙, 1991; 김경순, 1993; 박현숙, 1994)과 교복 만족도를 포함한 의복행동 측면(이상희 등, 1997; 이윅희 등, 1999; 황진숙 등, 2002; 정현주, 2002; 권숙희 등, 2002)에 치중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교복의 착용 쾌적성 관련 연구는 적은 편이며, 이 또한 여학생에 집중되어 있어(조현경 등, 1995; 권수에, 1998; 최종명 등, 2000; 이성자 등, 2002) 남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남학생을 대상으로 하복의 착용실태, 하복에 대한 만족도 및 하복 변형 여부를 조사하고, 하복 소재 종류 및 착용한 속옷 그리고 변형여부 및 체형적 특성에 따른

하복의 착용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남자 고등학생의 쾌적한 하복용 직물과 형태의 개선 및 착용감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충북 청주시와 경기 안성

<표 1> 조사대상의 체형적 특성

항 목	빈도(%)	계(%)	
신장(cm)	165이하	58(9.2)	633(100)
	166~170	168(26.5)	
	171~175	211(33.3)	
	176~180	138(21.8)	
	181이상	58(9.2)	
체중(kg)	50이하	38(6.0)	631(100)
	51~60	232(36.8)	
	61~70	236(37.4)	
	71~80	91(14.4)	
	81이상	34(5.4)	
로리지수*	비만	60(9.5)	630(100)
	정상	265(42.1)	
	수척	305(48.4)	
체형유형 (주관적 평가)	비만	142(22.2)	640(100)
	보통	265(41.4)	
	수척	233(36.4)	
체형만족도	만족	137(21.7)	639(100)
	보통	199(31.1)	
	불만족	301(47.1)	
외모만족도	만족	154(25.7)	640(100)
	보통	299(46.7)	
	불만족	177(27.7)	

* 로리지수는 몸무게(kg)/키³(cm)×10⁵에 의해서 산출하였으며, 1.2이하의 수척, 1.5이상은 비만, 그 외는 정상으로 규정하였다(이순원 등, 2002).

시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2학년 남학생 640명으로, 청주시 소재 고교생이 41.6%, 안성시 소재 고교생이 58.4%이었다.

조사대상의 체형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신장은 171~175cm인 경우가 33.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166~170cm(16.5%), 176~180cm(21.8%)로 나타났으며, 체중은 61~70kg인 경우가 37.4%, 51~60kg인 경우는 36.8%로 나타났다. 신장과 체중으로 산출되는 로리지수에 의해서 수척한 체형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48.4%로 가장 많았으며, 비만으로 분류된 경우는 9.5%이었다. 자신의 체형에 대해 주관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보면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41.4%로 가장 많았고 비만(22.2%)이라고 평가하는 경우보다 마른 편(36.4%)이라고 평가하는 비율이 다소 높았다. 따라서 많은 학생들이 객관적인 체형분류기준보다 더 비만이라고 주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편, 응답자의 47.1%가 자신의 체형에 대해서 불만족한다고 하였고 21.7%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체형을 포함한 외모에 대해서는 46.7%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고 만족과 불만족이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2. 조사기간

하복 착용기간인 2002년 7월 10일부터 18일 사이에 날씨가 맑은 날 오전 10~11시 사이에 실시하였다.

3. 측정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는 설문지로 선다형의 하복 착용실태 관련 문항과 5점 리커트 척도의 하복 착용감 평가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하복 착용실태 관련 문항은 본 연구를 위해서 작성하였으며, 하복의 착용감에 대한 평가문항은 선행연구(박우미, 1984; 유경숙, 1991, 최종명 등, 2000)를 토대로 하여 본 연구목적에 맞게 작성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WIN 10.0을 사용하

여 하복의 착용실태 문항은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하복 착용만족도 관련 문항은 주성분분석과 직교회전방법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하복의 소재, 착용한 속옷과 하복 변형여부 및 체형적 특성에 따른 하복 착용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와 F-test를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증으로는 Scheffé test를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하복 착용실태

1) 소지하복의 수

소지하고 있는 하복의 수를 살펴보면 하복 상의인 셔츠는 2매 정도 소지하고 있는 경우가 73.7%로 가장 많았으며 1매인 경우(15.0%), 3매 이상인 경우(11.3%)의 순서이었다. 이에 비해 하의인 바지는 1매 소지하고 있는 경우가 68.0%이었고 2매인 경우는 27.4%, 3매 이상인 경우는 4.5%이었다. 따라서 남학생의 경우 하복 소지정도는 상하의에 차이가 있어 바지에 비해 셔츠의 소지율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2) 하복의 소재

조상대상자인 고등학생들은 자신이 착용하고 있는 하복의 소재가 무슨 섬유인지 알고 있는 경우가 상의 27.5%, 하의 16.5%로서 하복 소재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다. 따라서 하복에 부착된 레이블을 보고 응답하게 하여 착용한 하복 소재를 조사하였다.

남자 고등학생의 하복 셔츠의 소재는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폴리에스테르/레이온 혼방직물이 50.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폴리에스테르 100%(10.1%)의 순서로 나타났으나, 소재에 대한 성분표시가 적혀 있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도 15.0%이었다. 또한 하복 바지의 소재는 양모/폴리에스테르 혼방직물이 30.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양모/레이온 혼방직물(18.1%), 폴리에스테르/레이온 혼방직물(17.3%)의 순서로 나타났다. 바지도 소재에 대한 성분표시가 없는 경우가 18.9%이었다.

따라서 하복용 직물은 폴리에스테르를 주로 하여 상의는 레이온, 하의는 양모를 주로 혼방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셔츠는 여러 매를 준비하여 자주 세탁하여 교대로 착용하게 되므로 습식세탁이 가능한 섬유소 성분을 혼방한 것이 애용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3) 하복에 착용하는 속옷 종류

남자 고등학생이 하복안에 착용하는 속옷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하복 셔츠안에 속옷을 착용하는 경우(90.5%)가 착용하지 않는 경우(9.5%)보다 현저하게 많았다. 선행연구에서 메리야쓰 내의 착용률이 여중생은 94.6%(이성자 등, 2002), 여고생은 95.0%(최종명 등, 2000)인 것에 비하면 약간 낮은 것이지만, 남자 대학생의 경우 여름철 상반신용 속옷 착용률이 36%이었다는 연구결과(김왕원, 1998)를 감안해 볼 때, 이는 고등학교에서 속옷을 착용하도록 지도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셔츠에 착용하는 속옷의 종류는 라운드 티셔츠를 착용하는 경우가 조사대상자의 60.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소매없는 메리야쓰

<표 2> 하복용 직물의 섬유성분

구 분		빈도(%)	계(%)
셔츠	면100%	37(6.0)	612(100)
	폴리에스테르100%	62(10.1)	
	폴리에스테르/아크릴	53(8.7)	
	폴리에스테르/레이온	308(50.3)	
	기 타	60(9.8)	
	표시 없다	92(15.0)	
바지	양모100%	15(2.5)	608(100)
	폴리에스테르100%	65(10.7)	
	양모/폴리에스테르 혼방	182(30.0)	
	양모/레이온 혼방	110(18.1)	
	폴리에스테르/레이온 혼방	105(17.3)	
	기 타	16(2.6)	
표시 없다	115(18.9)		

〈표 3〉 하복에 착용하는 속옷

구 분		빈도(%)	계(%)
상의에 착용하는 속옷 종류	소매없는 메리야쓰	127(19.9)	638(100)
	라운드 티셔츠	384(60.1)	
	메리야쓰+티셔츠	50(7.8)	
	기타	16(2.5)	
	입지 않음	61(9.5)	
메리야쓰 내의 소재성분	면 100%	139(80.3)	173(100)
	합성섬유 100%	3(1.7)	
	면/합성섬유 혼방	16(9.2)	
	표시 없음	15(8.7)	
상의에 속옷을 입지 않는 이유	겉옷의 맵싸상	18(29.5)	61(100)
	습관적으로	41(68.2)	
	기타	2(3.3)	
셔츠안에 라운드 티셔츠 입는 이유	목둘레가 과여서	118(27.8)	424(100)
	땀이 있어서	39(9.2)	
	친구를 따라서	20(4.7)	
	땀 흡수	167(39.4)	
	기타	80(18.9)	
하의에 착용하는 속옷 종류	흰색 삼각팬티	23(3.6)	638(100)
	색/무늬의 삼각팬티	209(32.8)	
	색/무늬 사각팬티	384(60.2)	
	기타	22(3.4)	
팬티 소재성분	면 100%	382(60.3)	634(100)
	합성섬유 100%	30(4.7)	
	면/합성섬유 혼방	130(20.5)	
	표시 없음	92(14.5)	

내의(19.9%), 메리야쓰 내의와 티셔츠를 함께 착용하는 경우(7.8%)로 나타났으며, 이 때 착용하는 메리야쓰 내의의 소재는 면섬유가 가장 많았다(80.3%). 여기서 속옷으로 가장 많이 착용한다고 응답한 라운드 티셔츠를 착용하는 주된 이유는 땀 흡수(39.4%) 및 하복 셔츠의 목둘레가 많이 과여서(27.8%)라고 하였다. 이는 더운 여름철에 메리야쓰 내의 위에 라운드 티셔츠를 덧 입어서 방서에 불리하므로 땀 흡수가 우수한 섬유의 셔츠와 목둘레가 너무 깊게 파이지 않는 디자인의 개선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한편, 셔츠 안에 속옷을 입지 않는 이유로는 습관적이라는 응답이 68.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는 겉옷의 맵싸 때문(29.5%)이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하복 하의에 착용하는 속옷의 종류는 삼각팬티(36.4%)보다는 사각팬티(60.2%)를 더 많이 착용하고 있었는데, 이는 최근 박스형 사각팬티 착용이 유행하고 있고 사각팬티가 여유량이 많아 시원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흰색(3.6%)보다는 유색이고 무늬가 있는 팬티(93.0%)를 더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 칼라 속옷의 착용이 증가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팬티의 섬유성분은 면 100%가 60.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면/합성섬유 혼방이 20.5%로 나타나 상의에 착용한 속옷에 비해 혼방소재의 착용률이 높았다.

4) 하복 변형실태

〈표 4〉는 하복에 대한 변형실태를 조사한 것이다. 조사대상의 73.2%는 하복을 변형하고 싶다고 하였으며, 54.2%는 하복을 변형시킨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하복의 변형형태는 바지의 통을 줄였다고 응답한 경우(69.4%)가 가장 많았는데, 변형이유는

〈표 4〉 하복의 변형실태

구 · 분		빈도(%)	계(%)
하복 변형 희망	희망한다	465(73.2)	635(100)
	희망하지 않는다	170(26.8)	
하복 변형 경험	있다	341(54.2)	629(100)
	없다	288(45.8)	
하복 변형 형태	상의길이 줄임	4(1.2)	340(100)
	상의 폭 줄임	15(4.4)	
	바지길이 줄임	72(12)	
	바지 통 줄임	236(69.4)	
	기타	13(5.8)	
하복 변형 이유	유행이어서	114(22.8)	500(100)
	몸매를 드러내고 싶어서	33(6.6)	
	체형에 맞지 않아서	182(36.4)	
	땀이 있어서	171(34.2)	

체형에 맞지 않아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36.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멋이 있어서(34.2%)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여고생의 67.3%가 하복을 변형시킨 경험이 있다고 하였으며, 변형형태는 스커트 길이와 폭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권숙희 등, 2002)와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었다.

2. 하복의 착용만족도 평가

1) 착용만족도 평가문항 요인분석

하복의 착용만족도 평가문항에 대하여 주성분분석과 직교회전방법을 사용하여 요인분석한 결과 <표 5>와 같이 셔츠와 바지 착용감 모두 3요인이 추출되었으며, 각 요인에 해당하는 착용만족도 평가 문항도 동일하였다. 셔츠의 경우 3요인의 전체 설명력은 54.9%, 바지의 경우 57.9%이었다.

요인 1은 셔츠의 경우 24.8%, 바지의 경우 27.2%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외관, 스타일, 디자인,

색상 등에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심미적 착용감' 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2는 설명력이 셔츠의 경우 15.3%, 바지의 경우 16.1%로 사이즈, 여유량, 활동성 등이 포함되는 문항으로 '운동기능적 착용감'으로, 요인 3은 온열감 및 습윤감에 대한 문항으로 설명력은 14.7%(셔츠), 14.5%(바지)을 나타내었으며 '온열생리적 착용감' 이라고 명명하였다. 이상과 같이 남고생의 하복 셔츠와 바지에 대한 착용만족도는 3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며, 각 요인의 신뢰도(α)는 0.87~0.66이었다.

2) 셔츠와 바지의 착용만족도 평가

하복 셔츠와 바지에 대한 착용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착용만족도는 5점 리커트형으로 평가되었으며, 5에 가까울수록 착용감이 좋은 것을 의미하는데, 셔츠와 바지 모두 세가지 요인이 각각 3이하의 낮은 점수를 보여 착용감은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5> 셔츠와 바지의 착용감 평가 문항 요인분석 결과

요 인	문 항	셔 츠			바 지		
		부하량	고유치	변량(%)	부하량	고유치	변량(%)
심미적 착용감	외관상 보기 좋다.	0.81	3.48	24.89	0.86	3.81	27.26
	유행하는 스타일이다.	0.81			0.85		
	디자인이 멋있다	0.80			0.84		
	색상이 좋다	0.79			0.80		
	디자인이 개성적이다	0.59			0.58		
	서로 조화를 이룬다	0.53			0.44		
운동기능적 착용감	체형의 결점을 보완해 준다	0.41	2.14	15.30	0.56	2.26	16.18
	사이즈가 몸에 잘 맞는다	0.82			0.78		
	전체적으로 여유가 있다	0.77			0.78		
온열생리적 착용감	활동하기에 편하다	0.73	2.06	14.72	0.71	2.03	14.51
	땀이 나면 축축하다(R)	0.71			0.71		
	덥다(R)	0.71			0.68		
	온도변화에 적응하기 어렵다(R)	0.70			0.66		
	땀이 나면 몸에 달라 붙는다(R)	0.65			0.74		
전체 설명력		54.93			57.95		

* R: 반대로 채점하였음.

〈표 6〉 하복의 상, 하의 착용만족도 평가 비교

하 복	심미적 착용감	운동기능적 착용감	온열생리적 착용감
셔츠(평균)	2.47	2.88	2.69
바지(평균)	2.37	2.76	2.79
paired t-값	3.16**	3.64***	-3.02**

** p<.01, *** p<.001

하복 셔츠와 바지에 대한 착용감의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paired t-test를 하였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착용감은 셔츠와 바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셔츠의 경우 바지에 비해서 심미적 착용감과 운동기능적 착용감은 약간 좋은 것으로 평가하였으나, 온열생리적 착용감은 바지가 다소 높다고 평가하였다. 이는 바지의 경우 통 줄임 등의 변형으로 인해서 운동기능성이 저하되었기 때문으로 보이며, 바지 안에 착용하는 속옷보다 셔츠 안에 착용하는 속옷의 매수와 피부면적이 많기 때문에 온열감을 상승시켜 상대적으로 셔츠의 온열생리적 착용감이 좋지 않다고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남자 고등학생 하복의 심미적, 운동기능적, 온열생리적 측면의 착용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비록 미국의 경우 이지만 학생들에게 교복은 색상만 제한을 하는 경우 선호도가 높고 교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결과(김윤희 등, 2001)를 감안해 볼 때 남학생 교복의 디자인과 소재에 대한 선호도를 심층적으로 조사하여 교복스타일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 셔츠 착용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셔츠의 소재, 속옷 착용여부, 하복 변형여부, 체형적 특성에 따른 셔츠 착용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 7〉에서 볼 수 있듯이 셔츠의 착용감은 셔츠의 소재, 속옷 착용여부, 하복 변형여부에 따라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먼저 셔츠 소재에 따른 착용감의 차이를 살펴보면 심미적 착용감과 운동기능적 착용감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심미적 착용감은 폴리에스테르/아크릴 혼방직물보다 폴리에스테르/레이온 혼방소재로 된 셔츠의 심미적 착용감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하였고, 폴리에스테르/아크릴 혼방소재와 폴리에스테르/레이온 혼방소재의 셔츠가 면 100%나 폴리에스테르 100%로 된 경우보다 운동기능적 착용감이 좋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다음으로 속옷 착용여부에 따른 착용감의 차이를 살펴보면 온열생리적 착용감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속옷을 착용한 경우가 미착용시보다 온열생리적 착용감이 다소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하복 변형여부에 따라서는 운동기능적 착용감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변형한 경우는 운동기능적 착용감이 좋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남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속옷 착용이 주관적 감각에 미친 영향을 연구한 결과(김양원, 1998)에서도 속옷을 착용해도 의복기후나 평균피부온 등은 모두 쾌적범위에 속하였다는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땀 흡수나 청결유지 등의 속옷의 기능을 고려해 볼 때 속옷을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학교와 가정에서 이에 대한 올바른 의생활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편, 체형적 특성에 따른 셔츠 착용감은 체형만족도에서만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자신의 체형에 대해서 만족하는 남학생일수록 불만족하는 남학생에 비해서 셔츠의 심미적 착용감을 높게 평가하였다. 그러나 로러지수, 자신이 평가한 체형유형이나 외모만족도에 따라 셔츠 착용감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따라서 하복 셔츠의 착용만족도는 객관적인 체형기준보다 체형에 대한 자신의 만족감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바지 착용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바지의 소재, 팬티 소재, 하복 변형여부 및 체형적 특성에 따른 바지 착용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 8〉,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바지 소재에 따른 착용감 차이를 살펴보면 심미

〈표 7〉 셔츠 착용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구 분		심미적 착용감	운동기능적 착용감	온열생리적 착용감
셔츠 섬유소재	면100%(n= 37)	2.35 ab	2.70 a	2.81
	폴리에스테르100%(n= 62)	2.46 ab	2.67 a	2.65
	폴리에스테르/아크릴(n= 53)	2.26 a	2.97 b	2.91
	폴리에스테르/레이온(n=308)	2.55 b	2.98 b	2.67
	F 값	2.85 *	3.07 *	1.69
속옷착용여부	미착용 (n= 61)	2.44	2.81	2.49
	착용 (n=577)	2.47	2.89	2.71
	t 값	-0.24	-0.72	-2.01 *
하복변형여부	변형 (n=341)	2.43	2.80	2.68
	미 변형 (n=288)	2.51	2.98	2.69
	t 값	-1.41	-2.68 **	0.12
로려지수	비만 (n= 60)	2.86	2.74	2.67
	정상 (n=265)	2.90	2.93	2.66
	수척 (n=305)	2.88	2.90	2.71
	F 값	0.09	1.08	0.25
체형유형 (주관적 평가)	비만 (n=142)	2.43	2.82	2.64
	보통 (n=265)	2.48	2.95	2.67
	수척 (n=233)	2.47	2.85	2.74
	F 값	0.25	1.20	0.79
체형만족도	불만족 (n=301)	2.34 a	2.85	2.66
	보통 (n=199)	2.58 b	2.94	2.77
	만족 (n=137)	2.58 b	2.87	2.64
	F 값	7.95 ***	0.66	0.48
외모만족도	불만족 (n=177)	2.37	2.86	2.64
	보통 (n=299)	2.48	2.92	2.67
	만족 (n=154)	2.56	2.85	2.78
	F 값	2.51	0.45	1.46

1) * p<.05, ** p<.01, *** p<.001.

2) ab는 Scheffé test 결과로 같은 문자로 표기된 것은 유의한 차이가 없음.

적 착용감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양모 100%로 된 바지의 심미적 착용감이 양모 혼방직물보다 약간 좋다고 평가하였다. 하복변형여부에 따라서는 운동기능성 착용감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여 변형한 경우 운동기능적 착용감이 좋지 않다고 평가하였으나, 팬티 스타일에 따른 착용감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다음으로 체형적 특성에 따른 바지 착용감은 체형만족도와 외모만족도에서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자신의 체형에 대해서 만족하는 남학생일수록 불만족하는 경우에 비해서 바지의 심미적 착용감을 높게 평가하였으며, 외모에 만족하는 남학생은 불만족하는 남학생보다 바지의 심미적 착용감을 높게 평가하였다. 그러나 로려지수나 자신

<표 8> 바지 착용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구 분		심미적 착용감	운동기능적 착용감	온열생리적 착용감
바 지 섬유소재	양모 100%(n= 15)	2.73 b	3.13	2.80
	폴리에스테르 100%(n= 65)	2.48 ab	2.90	2.75
	양모/폴리에스테르(n=182)	2.32 a	2.76	2.75
	양모/레이온(n=110)	2.36 a	2.76	2.79
	폴리에스테르/레이온(n=105)	2.19 a	2.72	2.84
	F 값	2.29 *	0.80	0.22
팬티 스타일	삼각형(n=232)	2.30	2.75	2.75
	사각형(n=381)	2.40	2.77	2.80
	t 값	-1.58	-0.27	-0.84
하복변형여부	변형 (n=341)	2.35	2.70	2.78
	비 변형 (n=288)	2.38	2.84	2.82
	t 값	-0.31	-2.13 *	-0.56
로려지수	비만 (n= 60)	2.43	2.58	2.81
	정상 (n=265)	2.40	2.78	2.77
	수척 (n=305)	2.32	2.78	2.79
	F 값	0.94	1.53	0.06
체형유형 (주관적 평가)	비만 (n=142)	2.30	2.67	2.91
	보통 (n=265)	2.39	2.78	2.76
	수척 (n=233)	2.38	2.78	2.75
	F 값	0.66	0.96	1.95
체형만족도	불만족 (n=300)	2.26 a	2.71	2.76
	보통 (n=199)	2.51 b	2.81	2.83
	만족 (n=137)	2.41 ab	2.79	2.80
	F 값	6.01 **	1.16	0.48
외모만족도	불만족 (n=177)	2.23 a	2.74	2.81
	보통 (n=299)	2.36 ab	2.70	2.83
	만족 (n=154)	2.53 b	2.88	2.69
	F 값	5.82 **	2.59	1.85

1) * p<.05, ** p<.01.

2) ab는 Scheffé test 결과로 같은 문자로 표기된 것은 유의한 차이가 없음.

이 평가한 체형유형에 따라 바지 착용감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따라서 하복 바지의 착용 만족도는 객관적인 체형기준보다 체형과 외모에 대한 자신의 만족감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IV. 결 론

본 연구는 남자 고등학생의 쾌적한 하복용 직물과 형태의 개선 및 착용감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청주시와 안성시에 소재한 남자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남학생을

대상으로 하복의 착용실태를 조사하고 하복소재와 착용한 속옷 및 하복 변형여부 등에 따른 착용만족도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남자 고등학생은 하복 셔츠를 2매, 바지는 1매 소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하복 셔츠의 소재는 폴리에스테르/레이온 혼방소재가 가장 많았으며, 하복 바지의 소재는 양모/폴리에스테르 혼방직물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대부분 하복 셔츠 안에 라운드 티셔츠, 소매없는 메리야쓰 내의 등의 속옷을 착용하였으며, 하복 바지 안에는 주로 사각팬티를 착용하였다.

3) 조사대상자의 2/3 정도는 하복을 변형하고 싶다고 하였으며, 과반수 정도는 하복을 변형시킨 경험이 있는데, 주된 변형형태는 바지의 통을 줄인 경우이었다.

4) 하복의 착용만족도 평가 문항은 요인분석에 의해 심미적 착용감, 운동기능적 착용감, 온열생리적 착용감의 3요인이 추출되었다.

5) 하복 셔츠와 바지에 대한 심미적, 운동기능적, 온열생리적 착용감 모두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6) 하복 셔츠와 바지의 심미적, 운동기능적, 온열생리적 착용감은 하복의 소재, 착용한 속옷, 하복 변형여부 및 체형과 외모만족도에 따라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서 남자 고등학생의 하복 착용감을 향상시키는데 제언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하복의 심미적 착용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남자 고등학생들이 선호하는 디자인과 색상을 조사하여 이를 반영하여 하복을 제정하거나 학교에서 바지는 지정해주고 정해진 색상 범위 내에서 셔츠 또는 니트 웨어 등 몇 종류 중에서 상의를 선택하여 착용하게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 독특하고 개성적인 이미지를 선호하여 속옷을 착용하지 않거나 교복을 변형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결과적으로 착용감을 저하시키므로 이에 대한 교육적 지도가 필요하며, 스판덱스가 함유된 신축성이 좋은 소재로 바지를 제작하거나 셔츠를 직물이 아닌 니

트로 제작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복소재에 따라 심미적, 운동기능적 착용감이 달라지므로 획일적인 소재 사용을 지양하고 다양한 소재를 사용한 교복을 시판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교복 선택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권수애(1998). 여고생 통학복의 착용감과 생리반응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7(2), 81-91.
- 권숙희, 김혜정(2002). 제주지역 여고생의 교복변형에 따른 치수 및 교복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1(4), 401-413.
- 김경순(1993). 여중생 교복 실태 및 디자인 선호에 따른 교복 디자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양원(1998). 하절기 속옷이 인체의 생리적 반응과 주관적 감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7(1), 139-146.
- 김윤희, Delong, M., Labat, K. (2001). 미국 고교생의 교복에 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5(6), 1167-1178.
- 박우미(1984). 남녀 고등학생의 의생활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의류학회지*, 8(1), 75-84.
- 박현숙(1994). 여자 중·고등학생의 교복착용실태 및 선호하는 교복디자인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경숙(1991). 여고생의 교복디자인 선호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5(3), 263-270.
- 이규태(1969). *개화백경*. 신태양사.
- 이상희, 김현식, 손원교(1997). 남녀고등학생의 교복 만족도, 의복관심도,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1(2), 383-395.
- 이성자, 권수애(2002). 여자중학생의 하복 착용 및 관리 실태. *충북대학교 생활과학연구논총*, 6(1), 169-189.
- 이순원, 김구자, 남윤숙, 노희숙, 정명숙, 최경미, 최유경(2002). *의복체형학*. 교학연구사.
- 이옥희, 강영의(1999). 중학생의 의복관여도에 따른

- 교복의 만족도와 선호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7(6), 139-153.
- 정현주(2002). 우리 옷 교복 착용 남자고등학생의 교복만족도와 이미지 평가. 한국의류학회지, 26(7), 1105-1113.
- 조진숙(1991). 교복 디자인 개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현경, 김희숙, 김은애(1995). 우리나라 여중생의 착용량과 쾌적감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3(1), 203-210.
- 최종명, 김희숙(2000). 여고생 하복의 착용만족도 및 하복용 직물의 쾌적성 평가. 대한가정학회지, 38(11), 105-114.
- 황진숙, 안명화, 용유진, 유승연(2002). 남녀 고등학생의 교복이미지 선호와 교복 변형행동의 비교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4(3), 243-247.

(2003년 6월 9일 접수, 2003년 9월 9일 채택)